

보람 있는 인생

신성근 야고보 신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의 삶이 완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람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람은 불안한 존재로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면 과연 사람에게 보람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1. 보람 있는 삶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쁜 인생살이를 한다. 그리고 각자 처해 진 환경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간다. 일주일, 한 달이 빠르게도 지나간다. 직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 몇 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퇴직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 젊을 적 모습은 어디 가고, 거울에 비친 흰머리를 보니 옛날이 그리워진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은 살맛, 즉 보람이 있어야 산다. 아무리 자신이 하는 일이 고생스럽다 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보람 있는 인생은 오히려 행복하다고들 한다. 그 대신 겉으로는 아무리 호사스럽고 가진 것이 많아도, 사는 보람이 없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사가 보람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수고와 정성이 뜻깊고, 가치 있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되기를 바란다. 욕심 같아서는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보람이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했으면 하는 소원을 한다.

더구나 자신의 수고와 정성과 선의가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무시될 때,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좌절감을 맛본다. 그러면서 내 삶을 보상받을 길은 없는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삶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살아온 만큼 값진 것이 되는 길은 없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영원한 가치를 띠고 길이 남게 하는 수는 없을까?

그러나 사람이라면 결국 부딪쳐야 하는 것이 있다.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하고 불행해진 인생이든 결국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다. 그렇다면 죽음을 넘어서까지 인생을 보람 있게 만드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만들어 줄 분은 안 계신 것인가?

교회는 답합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모든 선의와 수고는,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보람 있는 것이며, 하느님이 거두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패와 불행을 바로잡고 보상해줄 분이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고 가르친다. 마침내 우리의 삶도, 죽음도 신성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스도교는 보람 있게 사는 길을 보여주고 보람 있게 살도록 인도해 준다.

2. 한없는 갈망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고 찾아 나선다. 그러다가 인생을 많이 살았건 조금 살았건,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이 잠시면 끝나고 만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자신들의 생활과 가슴 밑바닥에는 원인 모를 불안이 있음을 느낀다. 더구나 인간은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한에 가까운 갈망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한숨짓게 된다. 마침내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가장 당혹하게 만들고 어처구니없게 만드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사람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욕심을 자신의 마음에서 깨끗이 몰아내는 것이 도리일까? 아니면 그 마음을 살려서 절대 안전한 소유, 영원한 사랑, 무궁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교회는 답합니다.

사람의 이 욕심은 타고난 것이며 당연하다. 사람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얻어 누리라고 창조되었다. 따라서 그 욕심이 채워지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 주고도 남는 행복은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 때 오는 것이다.

3. 남에게서 받는 생명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면 '나'는 결국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산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사람은 남에게 매여 산다. 그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단단히 매이는 대상은 부모나 자식 간이다. 부모와 자식 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천륜이요, 인간 도리 중에 첫째가는 도리이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가 소중한 관계임을 알면서도, 사람은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주신 생명이라 하여, 사람들은 그분을 '하느님', '하나님', '상제', '신' 등 여러 가지로 불러왔다. 우리 조상들은 조상님에게,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을 근본 도리로 생각하였고,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렇다면 조상과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도리는 인륜 중에서도 첫째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부모와 자식이 핏줄로 서로 당기듯이 하느님과 사람은 서로 끌린다. 하느님이 우리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느님을 잇는다 해도, 하느님은 인간을 잇지 못하신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못 잇듯이 말이다.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삼강오륜 중에서 부자유친이 으뜸이다. 그렇다면 하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유친보다도 더 으뜸가고, 근본 되는 도리라 할 수 있다. 그

도리를 한마디로 '종교'라고 한다. 즉, 사람에게 으뜸 되는 가르침, 세상에서 맨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 할 도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남편과 아내의 도리보다 앞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를 갖고 안 갖고는, 천목계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우리 인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내 인생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하는 대사(大事)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27항).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종교적 행위들(기도, 제사, 예배, 묵상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는 길을 표현해 왔다. 이러한 표현의 양식들은, 비록 모호한 점들을 내포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매우 보편적인 것들이므로, 인간을 종교적 존재라고 일컬을 수 있다(28항).